

# MZ세대들의 새해 소망은 '기회의 공정'

##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보니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인 MZ세대의 2022년 새해 소망은 '기회의 공정'으로 나타났다.

올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MZ세대'라는 말이 있다. 대선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의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후보들이 어떻게 답할지 주목되고 있다.

2일 노동전문가들의 모임인 '(사)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5.1%로 '그렇다' 응답(24.9%)의 3배를 넘어섰다.

MZ세대라고 불리는 20대(80.5%)와 30대

"공정한 기회 주지 않는다" 75.1%

"일자리 상황 나빠질 것" 53.5%

광주 청년 고용률 59.9% 그쳐

새해 소망 임금 인상·고용 안정 순

(85.2%)가 40~50대에 비해 부정적 의견이 훨씬 높았고, 비정규직의 응답도 80.8%로 정규직(71.3%)보다 10%가량 높았다. 청년 10명 중 8명이 '기회의 공정'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조사 항목에는 '나빠질 것'('매우 나빠질 것' 14.3%, '나빠질 것' 39.2%)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았다. '현재와 비슷할 것'은 36.7%였고,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9.8%에 그쳤다.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는 예상이다.

광주·전남지역 청년들도 올 한해 기어올라가지 않은 운동장을 바라보는 열망이 크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줄어든 탓에, 고향에 남아있을 기회가 부여되길 바라는 것이다.

취업을 하기 힘든 지역 청년들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까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다는 게 지역 청년단체들의 설명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내놓은 '2021 광주시 청년통계'에도 기회의 공정을 바라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지난 2020년 전입청년(타시도→광주)은 3만 5546명, 전출청년(광주→타시도)은 3만 8863명으로 전입보다 3317명의 전출 청년인구가 많았다. 인구 순유출은 2012년부터 계속됐고, 이 중 60% 이상이 20~30대 젊은 청년들이었다.

지난 2020년 광주지역 고용률도 전국 평균(60.64%)에 못 미쳤다. 2020년 하반기 광주지역 청년(19~39세) 취업자는 24만 9000 명으로 고용률은 59.9%를 기록했다. 청년(19~39세) 실업자는 1만 9000 명으로 실업률은 7.1%를 나타냈다.

2020년 워크넷(Work-Net)에 등록된 청년(39세 이하) 구직자의 구직건수 기준 희망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54.6%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은 정규직을 원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다. 광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0.8%로 2015년 35.5%보다 5.3% 포인트 증가하며 전국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39.4%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36.3%, 수도권 평균이 34.9%로 타지역에 비해 광주·전남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고,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청년들의 기회공정을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광주지역의 대기업은 거의 전무하며 지역 청년들이 기회의 불공정 때문에 지역을 이탈하고 있다"면서 "지역 청년들은 수도권 대학 청년들에 비해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대통령 후보들은 입으로만 '청년'을 외치면서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청년 직장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상세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은 임금(연봉) 인상(63.7%) 고용안정(32.7%) 성공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17.3%) 좋은 회사 아직(15.7%) 직장 내 좋은 인간관계 유지(11.2%) 순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당분간 눈 소식 없고 평년 기온

새해 첫 주 광주와 전남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영하 5도 안팎의 평년 수준 날씨를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3일부터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져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영하 5도 내외로 추겠다"고 밝혔다.

3일 일 최저기온은 영하 8~0도·최고기온은 3~9도, 4일 일 일 최저기온은 영하 3~영상 3도, 최고기온은 4~8도 분포를 보이겠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당분간 눈이 내리는 곳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서해안에서는 3일 순간풍속 55km/h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며 4일에도 바람이 25~45km/h, 순간풍속 60km/h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순천과 광양, 여수 등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만큼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상청은 "최근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 출범 체육시설·공영주차장 등 운영

광주시 북구내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출범했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북구정 산하 기관인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오는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

경영지원실, 생활시설팀, 체육시설팀 등 3개 부서 30여 명으로 구성된 공단은 중량제붕 및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 업무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84개소와 우산수영장, 태봉생활체육관, 체력인증센터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한다.

또 올해 개관 또는 완공을 앞둔 중흥도서관, 신용행정복합타운, 북구종합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우산생활체육관 등 생활SOC복합시설도 추가로 관리할 예정이다.

나기백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조직 운영으로 다른 어느 공단보다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 시립 제1 요양병원 호남권 첫 치매안심 병원 지정

광주 시립 제1 요양병원이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 안심 병원으로 지정됐다.

치매 안심 병원은 전국에서는 6번째로, 폭력과 망상 등 행동 심리 증상을 동반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일반 환자와 구분되는 치매 환자 전용 병동을 설치하고 공용 거실, 치유 환경을 갖춘 병동을 구비해야 한다.

병동당 60병상 이내로 제한하며 집중 치료를 위한 1인 병실, 전용 프로그램 실도 설치해야 한다.

광주시는 시립 제1 요양병원에 국·시비 18억원을 들여 2개 전문 병동, 83병상을 설치했다. 신경과 전문의, 치매 전문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하고 있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치매 안심 병원이 운영되면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새해엔 꼭 금연하세요. 직심삼일이 될지라도 새해가 되면 흡연자들은 금연계획을 세운다. 광주 북구보건소 금연상담사들이 최근 보건소 홈페이지에 금연클리닉 동의서를 제출한 금연운동 참가자들에게 보낼 금연보조제와 행동강화물품 등을 포장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 광주시, 최대 1%까지 지원

광주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정책의 하나다.

대상은 3개월 안에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과 인차

주택이 광주에 있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주택도시 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새로 또는 연장해 대출받은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는 대출 금액의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아이 키움' 홈페이지(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